

교회목표

1. 찬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 종 윤

발행처: 서울 장로 교회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517-7651~5

FA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듭나야 할 한국교회

— 종교개혁 476주년을 맞이하여 —

한국교회의 양적성장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종교개혁 476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한국교회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소리가 안팎으로 부터 들려지고 있다.

범람하고 있는 기복신앙, 교회 직분의 계층화, 개교회주의, 대교회주의, 교단분열, 지방색, 파벌주의, 교권주의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고사시키고 있는 독소들이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개혁자들이 외쳤던 성경중심 (Sola scriptura), 은총중심 (Sola gratia), 그리스도 중심 (Solus Christus)의 개혁정신을 회복해

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자각하고 역사와 민족앞에 사명을 다짐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양극화된 계층의 갈등을 해소키 위해 완충지역과 대화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종말론적 역사의식을 갖고 각분야에 책임있게 참여하여 변혁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변혁주의 사교란 하나님 말씀이 모든 종교와 문화에 대한 심판이요 수정이요 구속이며 재창조라는 사상이다.

일부 대형교회가 호화사치화, 기업화를 지향하며 지교회를 확장하여 교단화의 경향까지

추진하면서 개인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독재 내지는 우상화를 조성하고 있다. 역사의식이 상실된 이같은 교회들은 화려한 건물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는 기현상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파벌과 교권쟁탈로 나타났고 예언자적 사도적 사명을 망각한채 제사장적 직분을 내세워 세속적 야심과 바꾸고 있다.

이제는 자기를 자랑하는 목소리를 그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일천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앞에 함께 엎드려 울어야 한다. 거듭난 한국교회가 되지 않고는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가을을 수놓은 교사체육대회

지난 23일(토) 강변 고수부지에서 교사들의 단합을 위한 교사체육대회가 열렸다. 2-3개의 부서가 한 조가 되어 팀을 이루었던 이날 경기는 자웅을 겨루기 힘들 정도로 막상막하의 연속이었다.



■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다.

기도의 불씨되어 민족을 복음화하리

— 교역자 · 장로 함께 철야 기도회하다 —

지난 10월 29일 금요일철야 기도회는 우리교회의 기도불씨의 모임이었다. 오후 9시 전도특강이 있은후 교역자, 장로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더욱 깊이 끌고 들어가 기 위한 기도불씨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 올부졌었다. 비전 2000운동의 7대기도제목을 비롯한 기도주제를 갖고 기도한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들처럼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다.

축하합니다.

이종윤 목사는 지난 10월 28일(목) 오전 11시 서울 YMCA회관에서 서울 YMCA(회장 전대현)창립 제90주년기념 특별포장을 받았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회장 방우영)로 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창세기강해



이종윤 목사

하나님의 심문과 판결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계속 보는 듯한 느낌과 감상을 갖게 됩니다.

창조를 받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처음으로 찾아온 시험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모든 등장 인물들을 보면 왜 시험이 왔고 어느때 복이 오고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으며 언제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는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가정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 세 인물로 형성이 되는데 인간에게 온 시험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납니다.(창 3:8)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때는 복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탄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저주가 오고 고통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심판 자리에서의 심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그들을 불러 심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번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질문 가운데 매우 비극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한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행동을 했느냐”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는 질문으로

“네가 행한 일로 네가 어찌 될것인지 네가 알겠느냐. 네 영광이 어디로 갔느냐 나를 기쁘게 만나던 그 무죄한, 소박한 인간 아담은 어디로 사라졌느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법적인 조치를 위한 단순한 부르심으로서 “아담아 너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내 앞에 오너라”고 부르시는 음성으로 해석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 타락한 행동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를 불러 내시는데 그들은 숨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여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렘 16:16~17)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무엇을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12~13을 보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부르심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춤 죄가 없음을 깨달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하겠습니다.

2. 하나님의 심사과정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숨은 자리에서 머뭇거릴 수 없게 됨을 알고 하나님앞에 나와서 순순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하고 질문하신 것은 어떤 죄상이나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그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도록 함으로 겸손하게 하려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지만 그들은 무릎을 꿇는 대신 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귀절을 세 가지 방법으로 주석했는데 첫째,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둘째, 죄의 크기는 어디서나 같다. 셋째, 죄는 우리를 소경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심문하시고 그 죄의 실상을 완전히 입으로 토설케 하셨습니다.

3. 판결

하나님께서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때 결국은 “내가 먹었나이다”(12~13)라는 죄를 스

스로 고백함으로 그들의 죄가 판결이 된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 십자가 상에서 해결되지 아니했다면 우리도 이같은 심문과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행하여 지키는 자도 없고”(롬 3:10)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19에 의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문제가 해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뱀에게 내린 연도도 여자에게 주신 해산의 수고도 무서운 일이고 남자에게 땀 흘리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무서운 저주와 심판과 판결을 우리가 두려워 해서가 아니라 만일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 될 수 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좋은 찬송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예배도 형식과 격식을 따라 드려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가정의 죄문제를, 교회와 민족의 죄를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는 신자로서 이 시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회개를 하고 울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지고 아담과 하와와 같은 핑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6시(성경교실)

국동방송(HLKX 1188KHz)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나의 길잡이 다과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매주 일요일 오전 8시~30분(주일설교),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50분(재방송)



내가 해야 할 일은

열대지방은 대체로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든다. 고온다습한 기후, 불결한 환경, 급한 것이 없는 사회메카니즘은 빨리 빨리 문화에 젖은 우리들의 생리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적도 아래 있는 싱가포르의 예외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안정된 교통질서, 깨끗한 거리, 맑은 공기, 먼지없는 건설현장, 밤거리를 안심하고 활보하는 시민들, 울창한 가로수, 육교마다 만발한 부겐 빌라. 어느것 하나 부럽지 않은 것이 없는 남국의 낙원이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곳이다.

무질서,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나라가 이토록 경이로운 변화를 하게 된 것은 한 지도자의 혁명적 결단과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법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자유와 풍요를, 위대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금과 매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청렴한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질서는 잡혀야 하고 사회정의는 바로 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든 것이다.

연휴나 명절이 지난후 고속도로에서 수거되는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우리는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내집만 깨끗하다면 그것으로 족한가? 「NIMBY」의 울타리속에서 이기적인 고함만 치고 있어야 하는가? 만시지탄이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 벌칙금이 무겁게 부과된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하를 주님 오실때까지 깨끗하게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이 해야할, 아니 앞장서야 할 귀한 일일 것이다.

우간다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낯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을 현상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현재 2주간의 우간다 클루바 병원 사역을 마친후 다시 언어연수를 받기 위해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클루바 병원 사역은 참으로 기적이었으며 내게는 감사뿐이었습니다. 환자들의 극심한 열악한 상태로 인한 기아상태, 내병, 굶은 부위로 수많은 구제기가 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초조차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선교는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것을 생각하여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병원이지만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촛불과 손전등으로 낮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일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훈련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성경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다음 서신때까지 평안을 기도합니다.

우간다 선교사 임 정 미 드림

피택장으로 7인과의 만남(V)

최 종 시 집사

최선을 다하는 헌신으로



“장로장립식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런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작년 이맘때 집사로 안수를 받고 올해 장로로 세움을 받는 최종시 집사님은 우리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숨가쁘게 일하는 분이시다.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은 1978년 부터라고 하시는 최집사님은 81년에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40일 작정 철야기도를 한 후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지키셨단다.

“예배가 끝나고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예배실을 나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대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불편한 예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격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최집사님은 예배위원회 차장이라는 직분으로 인하여 우리교회에서 목사님과 더불어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시는데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예배실 밖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를 연발하시며 인사하시는 최집사님을 만나게 된다.

최종시 집사님은 부인 최길옥 집사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데 최길옥 집사님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봉사하며 주일이면 식당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말하자면 남편에게는 믿음의 선배격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남편의 신앙을 좇아가는 형편입니다. 우리 가정은 나중 된자가 먼저 되리라는 예수님 말씀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절었던 소녀시절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시댁식구를 구원하고 남편을 장로로 세우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절었던 소녀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최길옥 집사님은 자신도 봉사하지만 그보다 먼저 최종시 집사님이 하나님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신다.

우리가 편안히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렇게 뒤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 때문이라.

이제 장로로 기쁨부음을 받는 최종시 집사님에게 예수님께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시리라고 확신한다.

부풀른 가슴들이여

양 태 영 권찰

맑고 고운 가을하늘 아래
믿음, 소망, 사랑차에 몸을 실은
서울교회 수련회원은 달린다.

황금벌판에 무르익은
풍년의 곡식은
복음화된 남북통일의
새아침을 기약하듯
공손히 머리숙인채 미소짓는다.

울려퍼지는 감사 찬미소리에
부풀른 가슴 가슴들이여
울긋불긋 단풍진 자연의 섭리속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영광을 돌리리
주님 앞에서
(한나수련회에 다녀와서)

순례자칼럼

후래쉬맨은 깨어라

김광신 장로

대학입학의 영광을 후광삼아 용케도 열 달을 버티어 왔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영웅대접을 받으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부전공이고 열심히 놀고 즐기고 쉬는 삶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같은 헛됨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도 좋은 것이 없었고 즐겁고 기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허전함은 여전했고 무료함은 더욱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우연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 하나님께 은혜와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보살핌이었음을 잊고 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한평생을 자기 설계대로 살 수는 없으나 무계획의 연속을 고집하는 것 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고 달려가는 것이 훨씬 성경적일 것입니다.

80년만 살 수 있다고 가정하고 10년 주기로 삶의 목표를 설정해 봄이 어떻까 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지성이 팽창 생으로 바뀌어 가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존경을 받으며, 가정의 식구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4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은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심도있게 계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기초가 완전히 다져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력으로 신앙생활을 높여야 하고 교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의 신앙훈련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기본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실력도 필요하고 문학, 예술, 상식에서 다함이 없는 풍성함이 요구됩니다.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동참할 수 있는 풍성이 학창시절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신입생을 벗어나는 후래쉬맨들은 이제 깨어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처지는 선배들을 뒤로하고, 앞서가고 뛰어가는 후배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의 미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금의 가을을 탓하지 맙시다.

나누실 물건 있으시죠?

「모임과 나눔의 장」안내

작아진 옷, 장신구, 쓸만한 컴퓨터, 가전제품, 동화책, 성경책, 자동차까지. 11월 7일(주일)까지 교회에 오실 때 청년 회원들에게 내 주시면 됩니다. 모은 물건은 11월 12일(금), 13일(토) 이틀간 교회 뜰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자원과 환경을 아끼고, 성도의 교제하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모든 판매 수익금은 구제, 선교, 간축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 **중등부** 오는 11월 4일(목)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기도원에서 비전 2000운동과 93년도 중등부 평가를 위한 중등부 교사철야 기도회를 갖을 예정이다.



■ **새가족부** 지난 28일(목) 경기도 광주 "사랑의 집"에서 교사 학생 야외예배를 가졌다. 40명이

참여한 이 모임에서 참석자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 **소망부** 지난 28일(목) 양재 시민의 숲에서 60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야외예배 및 찬송경연대회를 실시했다.

■ **호산나** 찬양대 지난 26일(화) 무주구천동에서 한 해의 평가와 아울러 비전 2000운동을 위한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94년도 서리집사 교육완료

94년도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임명을 받은 후 서울교회 서리집사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일간에 걸쳐 완료되었다.

이들은 오는 12월 5일(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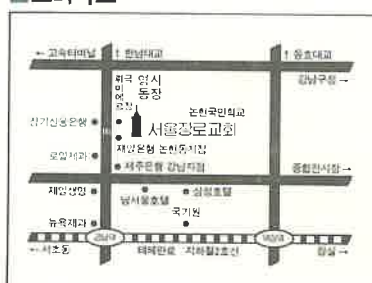
● 금주의 목회자 세미나 안내 ●

제 1 교 시	일시	제 2 교 시
14:00 - 15:30(90분)		15:50 - 17:20(90분)
성경적 교회성장 원리 이 중 윤 목사 • 서울강로교회	11월 1일	성경적 교회성장 원리 이 중 윤 목사 • 서울강로교회
	8일	번역(J. Bunyan)의 경건과 비전 장 중 칠 교수 • 은산대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 예배	오후 5:00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 목회자 세미나에 은혜스러운 진행을 위하여
- 비전 2000운동이 계획적으로 순조롭게 전개되도록